

●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과 향후 과제

추천 독자 일반인 ●●○○○ 공무원 ●●●●● 전문가 ●●●○○

한상우 조사연구위원 (hanx0055@gni.re.kr)
김미영 조사연구위원 (chenmy@gni.re.kr)

-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이 2021년 11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음.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면적이 71,531.6㎡(103필지)이며 개별 등록문화재가 10개소임
-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 및 가치를 요약하면, 최초의 근대계획도시 진해의 평면이 온전히 보존된 공간, 1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주민들의 삶이 유지되어 온 일상 공간, 국토수호·애국도시 브랜드 전통이 유지되는 상징의 공간, 식민도시의 틀을 깨고 자생적 근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 19세기 말 세계 제국주의 열강의 재편과정과 그 과정에서 생긴 모순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해양사적 증거의 공간, 현지에 보존된 전쟁범죄의 증거 공간 등으로 말할 수 있음
-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과 향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실천, 근대역사문화공간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강화,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 조례 제정 등의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1 근대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배경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이
2021년 11월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됐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란?

2021년 11월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서는 8번째로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됐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개항기(1876년) 이후 조성되고 건축·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건조물이 집적돼 있거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조물과 삶의 기억·흔적이 담긴 유·무형유산(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이를 선·면 단위로 보존 및 활용하여 역사문화자원 본래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정의된다.¹⁾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빠르게 변모하는 도시구조 속에서 계속 소멸되어가는 근대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대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서는 소중한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온전히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별문화재가 집적돼 있는 면적인 공간을 보호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1) 문화재청(2021),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공모계획에서 인용.

또한,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²⁾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기조가 되면서 역사문화자원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역사적 고증 없이 무분별한 복원과 디자인이 반영되고 역사문화자원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가치 인식과 도시재생의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³⁾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역사문화자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민단체나 전문가 중심으로 시작됐고 역사문화자원이 도시재생활성화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됐다. 특히,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신설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는 근대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행정력과 전문성을 구축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배경 하에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의 ‘점’단위 개별 문화재 중심의 단선적·평면적 보존·관리체계가 정책의 연계성과 통합성이 결여되고 가치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지원체계’를 2018년에 처음으로 구축했다. 이 사업은 공간과 자원의 성격에 따라 구역형·거리형·복합형으로 구분된다.

(표 1)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별 정의
구역(面)형	일정 구역(면적) 내에 역사문화자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곳 → 역사문화지구, 산업·상업 유산지구, 역사마을 등
거리(線)형	건축물, 시설물, 가로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거리(線)를 따라 집중 분포하고 있는 곳 → 역사문화거리
복합형 (面+線)	선·면 단위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통합·연계가 필요한 곳 → 역사문화공간

자료) 문화재청(2020),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확산 공모계획.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개소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2018년 시범사업에서 목포·군산·영주가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로 처음 등록됐고, 같은 해 확산사업⁴⁾으로 익산·영덕·통영이 선정됐다. 2020년 확산사업으로 충남 서천과 창원 진해가 선정됐고 각각 올해 2021년 10월과 11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됐다.

2)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사업(매경시사용어사전)

3) 문화재청(2019),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 연구, 4~5쪽.

4) 확산사업은 시범사업과 달리 종합평가 및 문화재등록 검토 절차가 추가됨.

(표 2)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지역/등록문화재명	개요	가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 국가등록문화재 제718호 · 면적: 114,038㎡(602필지) · 개별 등록문화재 15개소	1899년 개항 이후 ‘목포 해관’ 설치에 따른 근대기 통상 항만의 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의 생활사적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로서 보존과 활용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됨.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 국가등록문화재 제719호 · 면적: 152,476.3㎡(59필지) · 육상: 96,476.3㎡ · 해역: 56,000㎡ · 개별 등록문화재 5개소	1899년 개항 이후 「구 군산세관 본관」을 중심으로 초기 군산항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함으로써 근대항만의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의 경제생활사를 보여주는 보존과 활용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됨.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 국가등록문화재 제720호 · 면적: 27,714㎡(154필지) · 개별 등록문화재 6개소	철도 역사와 관사,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생활사 요소를 간직한 건축물이 집적되어 있어 영주의 근대생활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공간으로서 보존과 활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됨.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국가등록문화재 제762호 · 면적: 17,933.3㎡(80필지) · 개별 등록문화재 10개소	조선시대 읍성의 흔적이 남아있고 근대 장터거리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며, 1919년 3월 18일 3,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과 자유주의 사상을 고취하였던 곳으로 보존·관리가 필요함.
익산 소리 근대역사 문화공간	· 국가등록문화재 제763호 · 면적: 21,176㎡(119필지) · 개별 등록문화재 10개소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군산과 전주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은 시장과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1919년에는 4.4만세운동이 일어남. 공간 내에는 해방 후 형성된 주단거리, 바느질거리 등 당시의 경제상을 보여주는 건축물이 집적되어 있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음.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 국가등록문화재 제777호 · 면적: 14,444㎡(149필지) · 개별 등록문화재 9개소	통영 중앙동 및 항남동 일대는 조선시대 성 밖 거리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대한제국기부터 일제강점기 및 해방 후까지 변화하였던 구 시가지의 근대 도시 경관 및 건축 유산이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음.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	· 국가등록문화재 제819호 · 면적: 22,768㎡(93필지) · 개별 등록문화재 7개소	1930년 장항선 판교역 철도개통과 함께 양곡을 비롯한 물자의 수송과 정미, 양곡, 양조산업, 장터가 형성되어 한국 산업화 시기의 번성기를 맞이하였고 2008년 철도역 이전으로 본격적인 쇠퇴의 과정을 거친 근·현대 농촌지역 역사 흐름의 흔적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음.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 국가등록문화재 · 면적: 71,531.6㎡(103필지) · 개별 등록문화재 10개소	1905년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과의 전쟁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계획한 군항도시임. 19세기 중반 서구 도시경관의 개념이 도입된 군사도시로서 방사상 거리, 여좌천, 하수관거 등 도시의 뼈대를 이루는 기반시설이 당시 모습대로 남아 있어 면(面)적 공간단위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2021.11.20.기준)

2 ‘진해근대역사 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과 의의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면적이 71,531.6㎡(103필지)이며, 개별 등록문화재가 10개소이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은 2021년 11월에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서는 전국 8 번째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면적이 71,531.6㎡(103필지)이며, 개별 등록문화재가 10개소이다. 이들 개별 등록문화재 세부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개별 등록문화재 현황

연번	명 칭	건립 연도	수량/규모	소재지	특 징
1	진해 구 태백여인숙	1963	1동/지상1층 건축면적:94.91㎡ 연면적:94.91㎡	진해구 여좌동 761-61	진해역 앞 숙박시설
2	진해 보태가	1945	1동/지상2층 건축면적:181.42㎡ 연면적:249.19㎡	진해구 충무동 8-3	유럽식 파사드를 가진 건축물 앵커시설로 매입
3	진해 화천동 근대상가주택	1938	1동/지상2층 건축면적:235.5㎡ 연면적:395.8㎡	진해구 화천동 21-5, 21-6, 21-7	3동의 건물이 연립되어 있음
4	진해 송학동 근대상가주택	1913	1동/지상2층 건축면적:202.02㎡ 연면적:321.29㎡	진해구 송학동 13-3, 13-4	1층 주택과 2층 상가가 1필지로 구성. 원형 보존
5	진해 대흥동 근대상가주택	1913	1동/지상1층 건축면적:425.66㎡ 연면적:425.66㎡	진해구 대흥동 4-2~7, 6-1~4	모서리에 건립된 평면 'ㄱ'자 장옥
6	진해 흑백다방	1913	1동/지상2층 건축면적:125.6㎡ 연면적:211.44㎡	진해구 대천동 2-8	지역 예술인들의 사랑방
7	진해 일광세탁	1957	1동/지상2층 건축면적:248.07㎡ 연면적:372.04㎡	진해구 통신동 3-2, 3-3, 3-4	3대가 운영하는 대통령들의 단골 세탁소
8	진해 육각집	1913	1동/지상3층 건축면적:72.89㎡ 연면적:164.82㎡	진해구 대천동 1-9	유일하게 남은 진해 원도심의 랜드마크
9	진해 창선동 근대상가주택	1913	1동/지상2층 건축면적:229.29㎡ 연면적:373.34㎡	진해구 창선동 1-1, 1-2, 1-3, 1-5	평면 '—'자 장옥으로 자원형 유지
10	진해 황해당인판사	1913	1동/지상2층 건축면적:103.6㎡ 연면적:191.77㎡	진해구 중평동 23-9	장옥의 끝 모서리 건물

자료) 창원시(2020), 2020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확산 공모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계획서 참고 인용.

(그림 1)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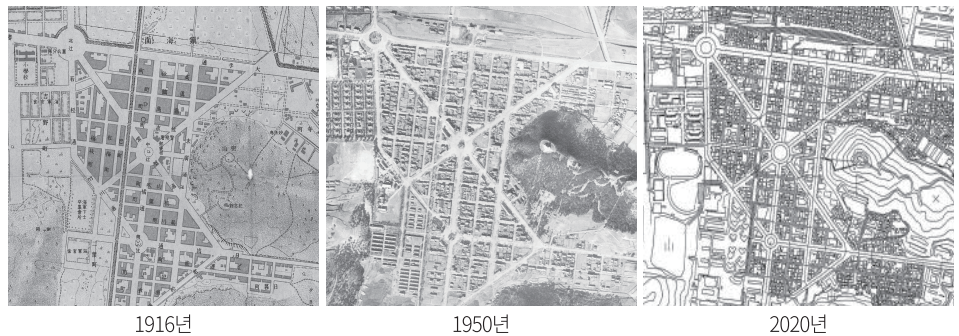


자료) 창원시(2020), 2020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확산 공모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계획서 참고 인용.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가치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의의⁵⁾

진해 충무동을 비롯한 원도심과 지금의 해군기지사령부 일대는 일본이 설계한 최초의 근대 계획도시다. 현재도 중원·북원·남원로터리로 연결된 방사상의 거리, 여좌천과 축대, 여좌천을 건너는 다리와 표지석, 하수도 석축 등 도시의 뼈대를 이루는 기반시설이 도시계획 당시의 모습대로 남아 있다. 진해우체국·진해역 등의 공공시설물, 육각집·흑백다방·원해루 등 상업시설이 원형대로 남아 있으며 장육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수십 개소에 달한다.

(그림 2) 진해 원도심 시기별 도시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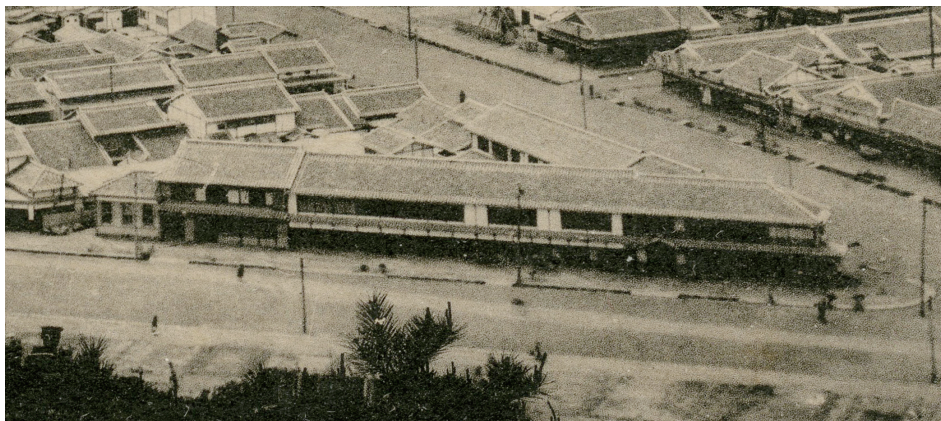


진해 도심에는 3대가 대를 이어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으며, 70년을 넘게 한 곳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진해 원도심의 산증인도 여전히 남아 이곳에서의 삶을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뼈대와 평면뿐 아니라 사람 또한 100년이 넘게 이 공간에서 일상 삶을 이어오고 있다.

1910년 일본은 서구의 도시경관개념을 도입하여 현재의 진해 원도심에 계획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27m의 광폭의 가로와 건물로 채워진 블록이 바둑판식으로 일정한 규격을 갖췄으며 자연하천이었던 여좌천을 진해역-중원광장 축과 나란하게 서쪽에 직선화하여 정시천이라 불렀다. 여좌천의 축대는 현재도 처음의 모습을 일부 유지하고 있다. 중원광장의 네 모서리에는 각각 다른 동양식과 서양식 스타일의 뽕죽집을 세워 경관성을 부여하고 이정표로 역할 하게 했다.

5) 창원시(2020), 2020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확산 공모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계획서에서 발췌·인용함.

(그림 3) 황해당인판사 1912년 사진(상, 오른쪽 끝건물), 현재모습(하)



자료) 사진(상) 창원시립진해박물관 소장 엽서(부분 개변)

진해 원도심은 처음 도시가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경관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쾌적한 도시였다. 건축규제에 의해 주요 가로에 면한 집들은 미관을 중시해야 했고 높이도 규제를 받았다. 빗나무를 가로수로 조성하여 상춘객을 맞았으며 중원광장을 둘러싼 구역에는 도서관, 은행, 우체국 등의 관공서를 배치하고 중원광장을 도시의 핵으로 기능하도록 행정기관을 집중시켰다.

한편, 최초의 근대계획도시 진해의 가로축과 광장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야욕과 폭력성이 숨어 있다. 방사상과 직선으로 연결된 광폭의 가로들은 해군요항사령부-원도심-요새사령부-진해만과 어느 방면으로도 연계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물자의 수송을 용이하게 했다. 이는 유사시에 군사물자를 쉽고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의도한 설계였다. 또한, 중원광장을 비롯한 복원과 남원광장은 소개공지로 비워두고 유사시 대공진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舊) 육군대학부지에 있었던 요새사령부의 배치도 이러한 계획 하에 설계됐다. 진해만 해역을 둘러싼 부산 가덕도, 거제도 지심도·저도 등에도 진해만 요새지대에 속했던 당시의 포진지터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군사시설은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의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됐다.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 및 가치를 요약하면, 최초의 근대 계획도시 진해의 평면이 온전히 보존된 공간, 110년이라는 세월동안 꾸준히 주민들의 삶이 유지되어 온 일상 공간, 국토수호·애국도시 브랜드 전통이 유지되는 상징의 공간, 식민도시의 틀을 깨고 자생적 근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 19세기 말 세계 제국주의 열강의 재편과정과 그 과정에서 생긴 모순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해양사적 증거의 공간, 현지에 보존된 전쟁범죄의 증거 공간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은 한국근현대사뿐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사 등 더욱 세계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역사의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3 향후 추진과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 계획 수립이 먼저
필요하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실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먼저 필요하다. 이 종합계획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관광 및 역사체험자원화를 활성화할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종합계획에서는 개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매입계획, 각종 자원화 계획과 함께 전체로서의 면적·공간적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한다.

합리적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진해도시계획 기본 틀 안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할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도출하고, 도시재생 매개체로서의 합리적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 진해 전체 공간 활용계획 틀 안에서 계획이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공간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 삶과 생산 활동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공간 조성계획이 마련돼야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계속 그 생명력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주민과 장소와의 관계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강화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현재도 기능하는 의미 있는 역사 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 조사연구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개별 및 전체공간에 얹힌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별 근대유산과 거리, 공간 등에 얹힌 개인사와 인문생활사 등을 발굴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하여, 개별 근대문화유산과 전체 공간을 현재도 살아있는 삶의 흔적과 추억의 장소로 의미를 부여하고 장소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콘텐츠화로 바로 연결되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나 콘텐츠산업화로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가능하다. 특히, 개별 유산과 전체 공간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은 근대유산 활용을 강화하고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 조례 제정

현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기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 목포시와 경북 영덕군은 각기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9.10.21)와 ‘영덕군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1.4.23)를 제정하여 해당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목포시 조례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주민참여와 주민협의체 구성,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 운영,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근대건축자산의 매입 등의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도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행·재정지원을 위한 토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문화재청(2019),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연구.
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창원시(2020), 2020문화재청「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확산 공모「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계획서.

G-Brief(Gyeongnam-Brief)는 경남의 경제·사회전망 주요현안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 국내의 선진정책 제도를 소개하는 정책소식지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경남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전 화 055-267-7447 FAX 055-266-2079

에디터 이슬하·신아름